에이즈 상담실에 비친 한국사회의 성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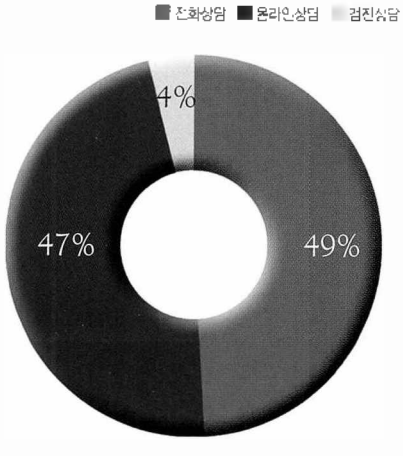
우리 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에이즈 대표전화 1588-5448 및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매체를 통하 전국 11개 상담실에서 에이즈 전문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에이즈 익명검사실(서울, 대구, 광주, 청원)을 통해 즉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에이즈 검사 상담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화(47,000), 온라인(30,000), 검진상담(3,500)을 통해 총 80,50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지난 1년간 협회가 실시한 25,000여 건에 대한 상담 항목별로 세부 분석 자료를 통해 에이즈 감염이 우려되는 '안전하지 않은 성행동'이 우리 성문화 속에 만연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유은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업부장

지난 1년간 에이즈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대다수가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65%)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성매매 후에 상담한 경우가(70%)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에이즈 감염을 막는 현실적인 대안인 콘돔 사용율은 불과 16%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05년 조사 연구(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콘돔 사용율이 약 20%인 것으로 측정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상담통계 결과 에이즈를 걱정할 만한 성관계에서의 콘돔 사용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검진상담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만취상태여서 사용이 어려웠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음하는 음주문화'가 안전한 성을 실천하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매체별 상담 실시 현황



실제 성접촉으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은 0.1%-1%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보고된 우리나라의 누적 감염인구 5,000여 명 중 대부분이(약 98%)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상담 통계 결과에도 우리나라의 에이즈 전파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에이즈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대중의 인식을 반영하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에이즈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에이즈 감염을 걱정하는 성관계에 대한 상담은 에이즈 검사에 대한 안내로 이어지게 된다. 에이즈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정황만으로는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필수적이다.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소(문의 및 예약 1588-5448)를 통해 지난 3년간 약 3,500여명이 상담을 받고 에이즈 검사를 받았다.

내담자 대부분 보건소와 병원에서 에이즈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협회의 검진 상담실을 찾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검사결과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50%)과 신분 노출이 없다는 점(30%)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에이즈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질병이기 때문에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병원에서 에이즈 검사 받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보건소에서도 익명검사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지만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검사에 더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설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에이즈 감염인구가 4,0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에이즈 감염인구가 과거 아프리카의 경우보다 더 빠르게 급증하는 현실이다. 국내적으로도 성문화의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제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에이즈 안전지대라고만 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

표 2] 성접촉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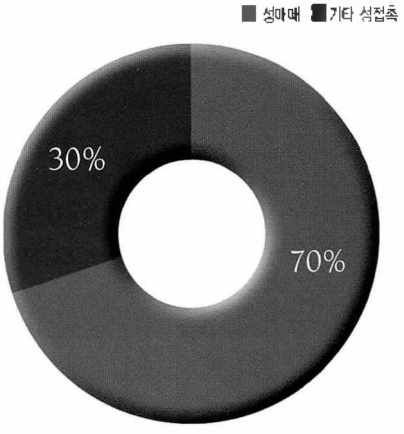


표 3] 콘돔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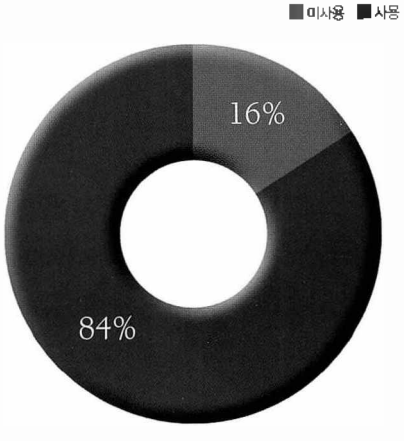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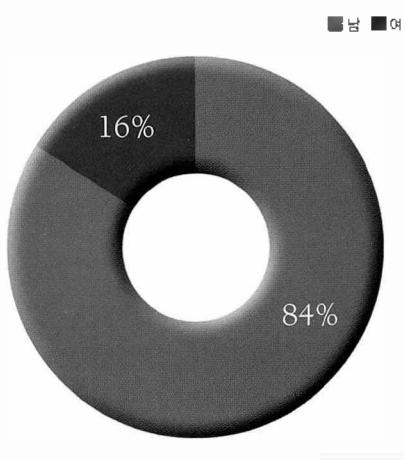


표4] 성별 상담현황



로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안전한 성의 의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콘돔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고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84% 로 압도적으로 많아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인 성비 10:1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중적이고 상업적인 성문화 탓에 남성들이 에이즈 감염을 걱정하는 안전하지 않는 성관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요 감염층인 20-30대에서 가장 많은 상담 78%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 매체별로 연령별 선호도가 차이를 보였는데, 전화는 30대가 39%, 20대가 3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온라인은 20대 이용자가 59%나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40대 이상의 인구층에서 에이즈 상담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이 연령층에 대한 에이즈 상담실 접근도를 높이는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담자의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상담이 2.5배나 높았는데(72%), 미혼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감염 여부를 걱정할만한 성관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성파트너 뿐만 아니라 결혼 한 후의 배우자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콘돔 사용 및 에이즈 검사 활성화를 위한 에이즈 교육 홍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에이즈 상담통계(2006년 8월 2007년 9월)

표5] 연령별 상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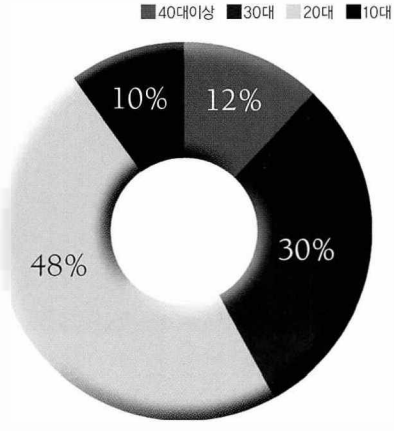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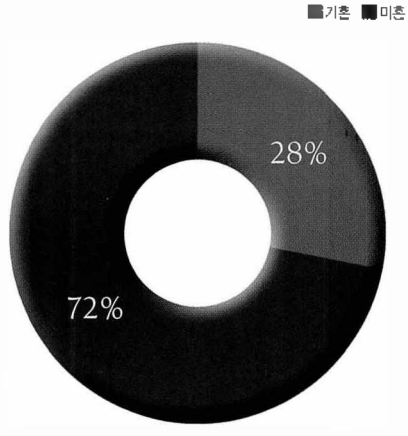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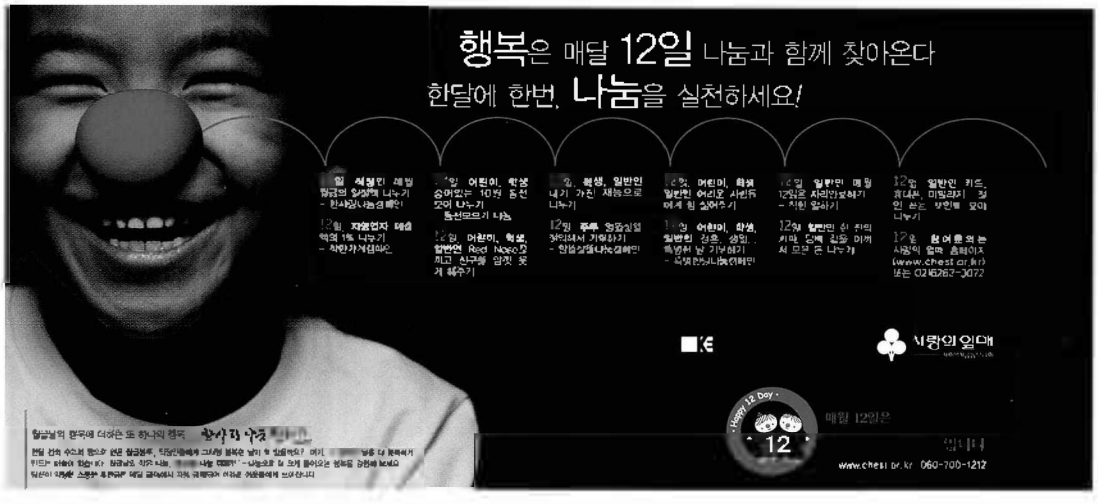



표6] 혼인여부 현황